

“시골은 스토리 세상, 명작 아닌 것이 없어요”

예향서 살아보니



2 '지리산 닷컴' 지기 권산씨

“시골에서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 아닌 것이 없어요. 그냥 마실 다니다가 동네 언니를 붙잡고 말을 걸어도 재미난 이야기가 쏟아진다니까요. 북북 내뿜는 말이 어찌나 우스운지, 명작이 따로 없어요.”

시골은, 특히 남도의 마을은 온통 스토리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지리산닷컴(jirisan.com)'지기 권산(52) 씨.

그는 2006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마을에 터를 잡았다. 조선시대 전통가옥인 '운조루' 부근이다. 지리산이 좋아 이름도 '산'으로 바꿨다. 그는 필명으로 뽕산(山)자를 쓴다. 산이 좋아 산으로 들어간 사람은 뽕어도 이름을 산으로 바꾼 이는 처음 본다.

지리산 닷컴 운영자인 그는 한마디로 독특하다. 인상도, 말투도, 철학도 특이하다. 지천명을 넘은 나이에도 짧은 상고머리, 북북 뿜어내는 짧은 말, 마음이 맞는 것만 하는 고집 등.. 비슷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인식되는 세상에서 그의 삶은 충분히 이색적이다.

그는 “서울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서울을 버렸다”고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곳에선 눈을 떠면 사방에 푸른 하늘이 보였다. 도심에서는 볼 수 없고, 말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누린다. 시골의 정감 넘치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골목만 나서면 공짜로 들을 수 있다. 거창한 서사가 아니다. 우습고 엉뚱하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코끝이 찡하도록 웃을 수 있다.

“우습고 엉뚱한” 일을 정작 그가 벌였다. ‘뽕땅에 펀드’를 출시한 것. 이름부터 기상천외하다. 수익이나 낼 수 있을까.

“뽕땅에 펀드는 이곳 오미동 마을의 농산물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돈을 투자한 이들에게 이곳에서 출토된 제철 유기농산물을 보내주는 거죠. 한 구좌에 30만원씩으로 작년에 대략 100여



지리산 닷컴지기 권산씨는 '뽕땅에 펀드'를 통해 구례에서 출토된 농산물을 가입자에게 공급한다. /구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이 좋아 서울 버리고 8년째 구례 정착

‘뽕땅에 펀드’ 출시...가입자에 구례농산물 공급

온라인에서 마을이야기 전달 도·농 소통 다리

구가가 신청, 현물로 '수익'을 배당받았어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게 낯새 아닌가. 농사는 기상경건이 부조를 해야 진행되는 일이다. 다행히 지리산은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추고, 바람을 주었다. 어머니처럼 무한한 은전을 베풀었다.

“일단 구례에서 출토된 농산물로 한정했습니다. 지역 특색이 있는 산마늘, 두릅, 감자, 고구마, 매실, 감, 하우스 오이, 콩, 우리 밀 등... 모두 20여 가지죠. 올해 재가입된 구구가 현재까

지 65구입입니다.”

일의 시작은, 농가가 단위농협과 경쟁할 수 있는 내성을 키우자는 차원이었다. 미력하나마 액션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유시민 펀드'가 떠올랐다. 사람이라는 콘텐츠에 투자한 첫 사례로, 정치자금을 싸드르게 받는 방식이었다.

농산물이란 될까 싶었다. 그는 말 그대로 ‘뽕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일을 벌였다. 평생 농사를 지어온 마을 어른들은 자연스레 ‘펀드매니저’가 되었다. 그는 매주 펀드를 위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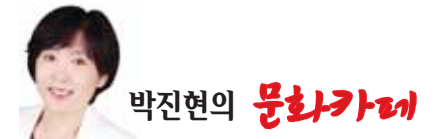
작 상황과 관련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전한다. 앞으로 2년 안에 오미동 마을의 농산물을 전국에서 받게 하고 싶다.

아내는 우리밀로 빵을 만든다. 일명 ‘힐링 브레드’. 우리밀분부가 구례에 있고 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아내가 만든 우리밀 빵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주말이면 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찾아온다.

그가 운영하는 지리산닷컴은 작물 외에도 마을 이야기가 주요 콘텐츠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작지만 생활 밀착형 미디어”다. 그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맛깔스러운 이야기로 전한다.

그의 넋네임은 ‘마을이야기’이다. 오프라인에서 이장은 마을의 대소사를 전하고 간단한 행정업무도 보조한다. 그에 반해 그는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도농간 소통의 다리를 놓는다. 머잖아 ‘뽕땅에 펀드’가 알짜펀드가 되는 날을 상상해본다.

/구례=박성천기자 j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요즘처럼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싶다. 최근 광주일보 자매지인 월간 '예향'이 11년만에 복간되자 여기 저기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소설가 이미란 교수(전남대)는 “을 들어 가장 기뻐한 일 중의 하나가 예향복간 소식이었다”고 전했고 임의진 목사(메이홀 관장)는 “외로움을 덜어줄 옛동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격하게” 반겨주었다.

기다렸던 시간이 길었던 탓일까. 예향에 거는 기대와 요청도

문화향유공간을 컨셉으로 3년 전부터 마이클 린치(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대표)와 큐레이터 라스 니티브(전 런던테이트모던 미술관장), 공연프로듀서 루이스 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해 콘텐츠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은 부러움, 그 자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2013 아시아 문화전당(전당)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문화개발원이 1년간의 산고 끝에 내놓은 전당 개관 콘텐츠는 희망 보다는 우려를 안겨주었다. 아쉽게도 준비한 '아시아 동반성장', '창의적 집단

문화전당은 판타지가 아니다

뜨거웠다.

서양화가 우재길씨는 “단순한 월간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달린 빅 문화이벤트를 아우르는 구심체가 되어달라”는 과분한 덕담을 건넸고 이용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는 “문화수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달라”는 애정 어린 당부도 잊지않았다.

그중에서도 '예향' 복간호의 커버스토리였던 '홍콩, 싱가포르, 광주의 문화전쟁'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많은 예술인들은 2015년 아시아의 문화 '지존'을 놓고 세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의 현지지포를 접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홍콩의 서구통 문화지구인 '충격'이었다고 했다. 21세기

지성의 형성', '문화도시 조성의 거점'이란 컨셉은 '난해해도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다. 창작공간인 지향유공간인 성격이 모호한 데다 콘텐츠 역시 특정주제나 정답을 건넸고 이후 화려한 '말의 성찬'을 보는 듯 했다. 오죽했으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이 "너무 막연하다"며 수정·보완을 지시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광주는 교통과 인프라 등에서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열세다. 광주만의 '필살기' 콘텐츠가 없는 한 '아시아의 남미'를 놓고 세 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의 현지지포를 접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홍콩의 서구통 문화지구인 '충격'이었다고 했다. 21세기

봄 햇살 같은 바이올린 선율

김능화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문화관

김능화 바이올린 독주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현재 목포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사단조', 슈베르트의 '환상곡 다장조',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다단조', 베에니아프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2번 가장조'를 들려준다.

전남대와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라티너 음악원에



서 수학한 김씨는 목포시향, 광주시향, 광주 챔버 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시향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피아노 반주는 박진희씨

가 맡았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하는 그대에게... 광주문화재단 내일 '해설이 있는 음악회'

사랑하는 연인에게 띄우는 감미로운 노래들을 해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은 1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목요상설무대 '더 싱어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사랑하는 사람에게'를 선보인다.

'더 싱어즈'(대표 이한나)는 유학파 성악가들로 구성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여성 솔리스트들의 모임이다.

공연은 아름다운 그대에게, 기억속의 그대에게 등 다섯 파트로 구성, 가요와 뮤지컬·영화 주제곡 등을 들려주고 소프라

노 유형민이 해설을 맡는다. 소프라노 나혜숙, 노선진, 정현아, 유형민, 메조 소프라노 김진남, 김지영, 노현숙, 박하영, 알토 구성희, 김순미, 신은정, 이한나가 출연하고, 피아노 반주는 구복희, 박지현이 맡는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70-7492. /이보람기자 boram@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민첩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2012 DAENEUNG'S Best Seller

포켓 사이즈 MP3 무로다운 효율적 학습

알파벳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대능·인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파벳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